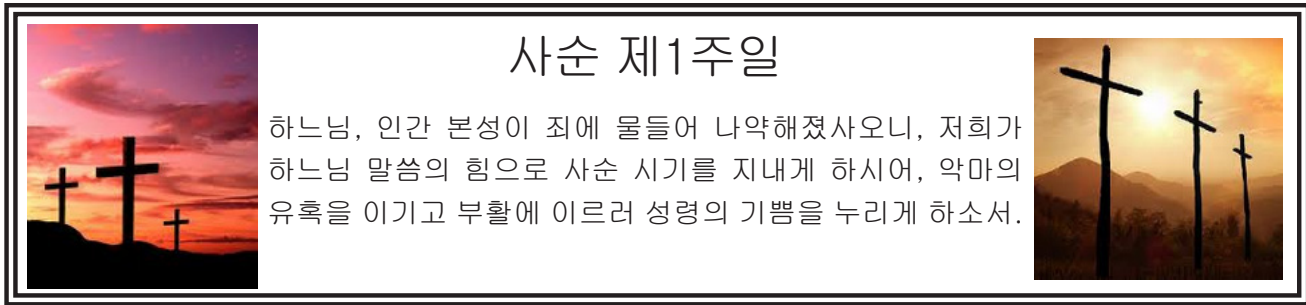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3월 기도지향

- 안동현(프란치스코), 지은경(리브가) 가정
- 정수한(베드로), 김주연(세실리아) 가정

3월 교황님 기도 지향 : 여성의 권리와 존엄이 모든 문화 속에서 존중받도록 기도합니다.

성 요셉 성월

교회는 해마다 3월을 ‘성 요셉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 요셉 성월은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양아버지인 요셉 성인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는 달입니다. 요셉 성인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약혼자 마리아를 주님의 뜻에 따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의 협력자로 삶을 바치셨습니다.

사순시기 운동

- 성경 필사 : 시편
- 구역미사 및 환관
- 사순 특강

견진교리 일정

- 일시 : 3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 장소 : 회관
- 교재 : 가톨릭 교회 교리서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 3/15(토) 오전 11시
- 장소 : 성 토마스 모어 성당

문화 행사

- 일시 : 3/9(일) 오후 2시
- 내용 : 영화 「 Son of God 」 단체 관람
- 장소 : Westglen 18 Theater / I-435 N. Exit 5

기타

- ‘재의 수요일’ 미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캔사스 대교구 사순절 운동으로 ‘라이스 볼’을 나누어 드립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18	211	174/178	123

주일미사 복사

	향 복사	시중 복사
금주	정준구(파비아노)	김준영(요 셉)
	차호섭(요 셉)	차서은(세라피나)
차주	문석찬(요 셉)	문호진(안토니오)
	정병훈(보니파시오)	안지영(카타리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세실리아)	문석찬(요 셉) 백문주(엘리사벳)
차주	최은미(아네스)	차호섭(요 셉) 최선운(마 리 아)

애찬 봉사자

금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한순례
차주	손정화, 양정희, 유애경, 한춘희, 황의정

헌금 봉사자

금주	문석찬(요 셉), 최은미(아 네 스)
차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 드 로)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3/2	65명	271불	1,500불
김정애, 남기하, 김태중, 정수한, 안동현, 김정환(총 6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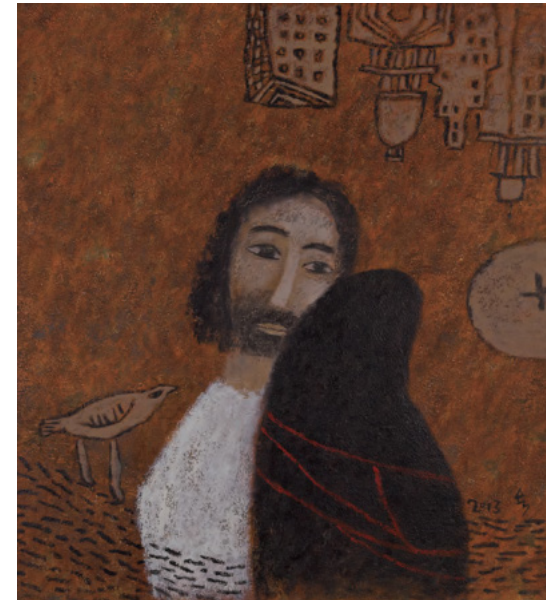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원조들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미사에 정성껏 참여하며 죄를 멀리하는 새로운 삶을 다짐합니다.

성화해설

유혹의 도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마태 4,10-11)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광야에서처럼 최후의 순간 십자가 위에서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유혹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로 유혹을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바오로는 말합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로마 12,21)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창세 2,7-9; 3,1-7 < 사람의 창조와 원조들의 죄 >



◎ 주 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 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 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 서

○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크오시니, 저의 죄를 없이주소서.

제 잘못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허물을 깨끗이 없애 주소서. ◎

○ 저는 저의 죄를 알고 있사오며, 저의 죄 항상 제 앞에 있습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죄를 얻었삽고, 당신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주소서.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옵시고, 당신의 거룩한 열을 거두지 마옵소서. ◎

○ 당신 구원 그 기쁨을 제게 도로 주시고, 정선된 마음을 도로 굳혀주소서. 주님 제 입시울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미 전하오리다. ◎

제 2 독 서 : 로마 5,12-19 <또는 5,12,17-19> <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총만히 내렸습니다. >

복음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 음 : 마태 4,1-11 < 예수님께서 사십 일을 단식하시고 유혹을 받으신다. >

쉐 마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14년 사순 시기 담화



“그분께서는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가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2코린 8,9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부유한 모습이 아니라 약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영광을 벗으시고 자신을 비우시어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필리 2,7; 히브 4,15 참조).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는 모두 하느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은총이고 너그러움이며 가까이 하려는 열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일하시고 인간의 정신으로 생각하시고 인간의 의지로 행동하시고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어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으며, 죄 말고는 모든 것에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사목 헌장 22항).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의 논리, 곧 사랑의 논리, 강생과 십자가의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택하신 이 가난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나약함과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난은 가장 큰 부요입니다. 예수님의 부요는 그분이 **아드님**이시라는 데에 있으며, 아버지와 맺으신 유일한 관계가 이 가난한 메시아의 최고 특권입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의 가난을 통하여**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부요는 우리의 부요를 통하여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에 힘입어 실천하는 우리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가난을 통해서만 전해집니다.

빈곤은 가난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빈곤은 믿음과 연대와 희망이 없는 가난입니다. 이 빈곤에 맞서

교회는 도움을 주면서, 곧 **봉사**(diakonia)를 하면서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인류의 모습을 훼손시키는 그 상처들을 감싸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봅니다.

복음은 영적 빈곤의 참된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이 해방의 소식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비와 희망의 메시지를 기쁘게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순 시기에 교회 전체가 물질적, 도덕적, 영적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메시지를 증언할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싸 안을 준비가 되신 자비로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가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신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순은 금욕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의 가난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부유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물어보도록 합시다. 진정한 가난은 아프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러한 차원의 참회 없이는 그 어떤 금욕도 참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희생도 따르지 않고 아픔이 없는 자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힘입어 우리는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2코린 6,10 참조).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의 결심을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간의 빈곤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키우도록 도와주시어, 우리가 자비로우시고 또 자비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희망으로 저는 또한 모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과 모든 교회 공동체가 사순 시기를 풍요롭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동정 마리아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티칸에서
2013년 12월 26일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에

마중물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어느 백화점 식품 영업부에서 소비자 소비심리 행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험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똑같은 10평 넓이의 쇼윈도 위에, 똑같은 시금치 100단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A코너 위에는 100쪽 짜리 전구를 10개 켜 두고, B코너 위에는 100쪽 짜리 전구를 6개 켜 두었습니다. 3시간 후 판매 실적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였을까요? 그렇습니다. 100쪽 짜리 전구 10개를 켜 놓은 A코너 쪽 시금치가 90단이 팔렸고, 100쪽 전구 6개를 켜 놓은 B코너 쪽 시금치는 70단이 팔렸습니다. 이 간단한 실험 결과가 말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밝은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밝은 쪽 시금치가 어두운 쪽 시금치보다 훨씬 싱싱하고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이기 쉽습니다. 어둡고, 비판적이고, 게으르고, 우울하기 쉽습니다. 확신이 없으니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의 분위기는 한 마디로 어둡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기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웃음, 여유, 부지런함, 청결, 깨끗함, 자유, 넉넉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분위기는 한 마디로 밝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갑니다. 그러나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하나 둘 꾸준히 모여듭니다. 그리하여 그 모여 든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력하여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 9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86. 왜 교회는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어야 합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을 당신과 함께 살게 하였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계시하셨으며, 당신의 사명과 기쁨 그리고 당신의 고통에 그들을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의 더욱 긴밀한 친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요한15,4-5). 그리고 당신의 몸과 우리의 몸 사이의 신비롭고도 실제적인 친교를 예고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 6,56; 가톨릭교회교리서 787항).

87.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니까?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를 잘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제자들이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당신의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과 이루는 친교는 어떤 의미에서 더 강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불러 모으신 당신 형제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시어 신비로이 당신의 몸을 이루셨다”(교회헌장, 7항).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 주위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 안에서, 그분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세 가지 측면, 곧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이루는 ‘한 몸’ 즉 모든 지체간의 일치, 그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특히 강조되어야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88-799항 참조).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